

# 1970년대 한국 추리서사에 기입된 여성 스파이 재현

— 『기생간첩 김소산』을 중심으로

김재건\*

## 요약

추리서사는 일반적으로 탐정, 범인, 희생자 등의 인물 유형이 등장하고, 불가사의한 범죄의 발생과 그 해결과정을 중심 플롯으로 삼는 이야기를 일컫는다. 본 논문은 여성 스파이가 등장하는 1970년대 추리서사가 위에 제시한 삼분화된 인물 유형의 도식을 부분적으로 와해시키는 전략을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 『특별수사본부』(1972) 시리즈 중 『기생간첩 김소산』을 분석의 주된 텍스트로 삼아 그 주제 의식을 밝히고자 했다. 위 소설은 범인/희생자의 인물 유형이 통합된 형태로 등장하고, 이 인물에게 감정적 동일시를 유발하게끔 서사가 진행된다. 범인을 묘사할 때 선악의 구도 속에서 악인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 상황과 그 범죄의 동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탐정은 범인/희생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동정하며 그들을 위기에 처하게 하는 배후 세력을 추적한다.

범인/희생자는 위 소설에서 '여성 스파이'이다. 이 인물은 신생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 및 이를 전복하려는 공산정권 등의 상징화된 질서에 통합되지 않는 존재로서 반공소설의 문법을 비트는 사건과 갈등을 추동시킨다. 이 힘의 원천은 여성 스파이의 '육체'에서 비롯되기에 본고는 특히 여기에 집중했다. 그녀가 발생시키는 행동(사건)의 수행적 의미는 이 소설의 다채로운 주제의식을 형성하게 만드는 요소이기에 주목을 요한다. 지금까지 1970년대 스파이 추리서사는 냉전의 산물로서 독해되어 왔지만 본고는 그 감각을 넘어서는 논리가 텍스트 안에 내장되어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주제어: 추리서사, 여성 스파이, 육체, 반공소설, 대한민국 건국, 6·25 전쟁

목차

1. 서론
2. 『기생간첩 김소산』과 반공 이데올로기
3. 여성 스파이 육체의 전시와 서사전개
4. 비언어화된 육체와 질서 바깥의 상상력
5. 결론

## 1. 서론

여성 스파이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질문하게 만드는 은모든의 소설 「첩보원 시절」(『문학과사회』, 2022년 봄, 68~105면)은 원로 여배우 ‘선우정심’(이하 ‘정심’으로 지칭)과 현직 여배우 ‘성지’의 만남을 성사시켜 대중매체 내에서 여성 연기자가 어떤 배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시사한다.<sup>1)</sup> 이 소설은 많은 겉가지 주제들을 함의하고 있지만 단연 그 중심은 성지가 전반부에 펼쳐놓은 질문을 후반부에 정심이 답하게 되는 대응의 구조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소설의 전반부에 성지는 “자체적인 서사 없이 알리바이로 쓰이는”(77) 배역을 연기하는 데에 따른 곤혹스러움을 고백한다.<sup>2)</sup> 이를테면, 성지가 맡은 배역은 두 남성 주인공의 관계가 쿼어적으로

1) 스파이(첩보)형 추리소설의 등장인물은 20세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과 동·서 간의 냉전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정통 추리소설이 탐정과 범인 사이에 벌어지는 쫓고 쫓기는 양상으로 전개된다면 이 계열의 작품들은 국가조직 간의 맞대결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정규용, 『추리소설의 세계』, 살림, 2021, 74면 참고)

2) E. M. 포스터에 따르면 ‘플롯(plot)’은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즉, “왕이 죽자 왕비도 죽었다.”는 스토리(story)이지만 “왕이 죽자 슬픔을 못 이겨 왕비도 죽었다.”는 플롯이다. 그렇다면 성지가 본인의 배역을 “자체적인 서사 없이 알리바이로 쓰이는 역할”이라고 진술한 부분은, 작품의 중심 주제와는 거리가 먼, 인과성 없이 삽입된 서사를 가리킨다. 이러한 서사는 플롯이나 스토리에 포함되지 않는다.(E. M. 포스터 지음, 이성호 옮김, 『소설의 이해』,

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삽입된 하나의 코드로서 조연급에 해당한다. 한편, 정심은 성지가 자신의 집에 방문해 배우를 관두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을 때 촬영 현장에서 느낀 ‘어색함’에 대해 생각한다.

컬러화면 속에 허벅지를 드러내는 미니 드레스를 입고 나서는 일에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실은 호텔 바에 잠입하여 미인계를 펼치는 첩보원 역할 자체에 어색함을 떨칠 수 없었다.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가지 않았으므로 후배를 달래줄 자격도 없는 것만 같았다.<sup>3)</sup>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정심은 “허벅지를 드러낸 미니 스커트”를 입고 “호텔 바에 잠입하여 미인계”를 펼치는 “첩보원 역할”에서 어색함을 느낀다. 정심이 느낀 이 감정은 소설의 주제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서 주목을 요한다. 그는 당시 베테랑 연기자로서 술한 배역을 감당한 인물이지만 그의 경험세계를 넘어서는 여성 첩보원 역을 맡게 되면서 어색해한다. 따라서 정심의 감정을 추적하다 보면 독자는 첩보 활동에 가담한 여성 스파이의 역할에 대해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되고, 대상화된 여성 인물이 서사 안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분석을 종합하면, 성지의 배역이 인과성 위에 구축된 게 아니라 주연급 배우의 성격을 돋보이게 만드는 특정 효과의 장치로 기능한다면 정심의 배역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호텔에 잠입하여 미인계를 펼치는 성적 대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두 인

106면 참고.) 한편, 서사는 일반적으로 진짜든 허구든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 담론의 주제가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연결되고 대립되고 반복되는 여러 관계를 말한다.(제라르 즈네프, 권영택 옮김,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15면.) 이러한 서사적 개념들을 통해 질문할 수 있는 것은 한국문학에서 여성 스파이가 ‘서사에는 등장하지만 플롯 층위에서 그 존재가 어떻게 비가시화되었는가?’이다. 특정 층위에서 여성 스파이를 삭제시키는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숨은 관행은 여성 스파이의 목소리를 차단시키고, 통합된 인격체로 보는 걸 방해한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연구 결과가 필요하겠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일종의 ‘착취’로 본다.

3) 은모든, 앞의 책, 101면.

물의 목소리는 위 소설 속에서 상호 공명하며 한국 추리서사 속 여성 주인공들의 특징에 대해 주목하게 만들고 특히 그들이 서사 내에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도록 이끈다.<sup>4)</sup>

한국 추리서사의 계보에서 1970년대는 김성중이라는 개인에 의해 추리소설의 전통이 이어지던 시기로서 ‘탐정’ 및 ‘범인’ 유형의 특질들이 고착화된다. 그것은 어두운 분위기와 몸을 사리지 않는 활동적인 탐정과 죄 없는 범인의 등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sup>5)</sup> 기왕의 추리서사는 ‘탐정, 범인, 희생자’의 인물 유형이 등장하고, 불가사의한 범죄(대부분 살인)의 발생과 그 해결과정을 중심 플롯으로 삼는 이야기를 일컫는다.<sup>6)</sup> 추리서사의 플롯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행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기에, 세계의 원인과 결과가 질서정연하게 전개된다는 믿음이 시대 정신으로 부상한 역사적 시기에 탄생한 장르이다. 한국의 경우 근대 초기부터 현재까지 추리서사의 역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①첫 번째는 20세기 초부터 1940년대까지로서 서양에서 일본을 통해 유입된 추리소설이 수용되어 전근대의 추리서사와 접변을 일으키며 전유되는 시기이다. ②두 번째는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로서 근대화로 인한 자본주의적 도시화가 본격화되고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추리소설이 성립되는 시기이

4) 이와 관련하여 공임순의 「냉전의 육화, 스파이의 비/가시적 신체 형상과 ‘최초의 소제/미제 간첩단 사건」(현대문학의 연구 55, 2015, 507-563면.)의 연구는 한반도를 국제 스파이들의 중심 무대로 그리려 했던 이광수의 미완의 장편소설 『서울』(《태양신문》, 1950. 1. 연재 시작)을 분석한다. 위 연구에 따르면 이 소설에 등장하는 스파이의 신체 형상은 국제 공산주의 청년 남성(서병달)이다. 위 작품은 작가 본인(이광수)이 비판해 하지 않던 ‘주의자/혁명가의 부정적인 초상’을 대변하는 인물(안타고니스트)을 그려 넣음으로서 남성 스파이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서사 내에서 주동인물과 어떤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를 펼쳐 보인다. 그러므로 위 소설은 『기생간첩 김소산』과 서사세계(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기)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첩보작전에 가담한 ‘스파이’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특히 주목했다. 종합해보면 위 두 소설은 ‘남성 스파이(서병달)와 ‘여성 스파이(김소산)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어 각 인물 간 특징을 비교 가능하게 한다.

5) 오혜진, 「1950-90년대까지 추리소설의 전개 양상」, 어문논집 제44집, 2010, 310면 참고.

6) 대중서사장르연구회, 「총론」,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이론과실천, 2011, 19면.

다. 특히 19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경찰의 역할이 강화되며 탐정 중심형 서사가 부상한다. ③세 번째는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서 1980년대 후반 이후 소련의 붕괴, 독일의 통일과 함께 완강한 이분법의 토대로 작용했던 냉전체제가 와해되며 추리물은 사회현실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동시에 개인적 취향을 따르는 놀이로 자리 잡아가게 된다.<sup>7)</sup> 본고에서 살펴볼 1970년대에 제작된 『특별수사본부』(1972)는 한국 추리서사 발전의 역사에서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하며, 장르의 이름이 ‘탐정’에서 ‘추리’로 대체된 시기이기도 하다. 탐정은 형사 혹은 검사는 사건 해결의 인력이면서도 제도권의 직업을 갖고 있고 그 주제는 반공 이데올로기이다. 당시 추리서사의 또 다른 특징은 범인과 희생자의 인물 유형에 감정적 동일시를 유발하게끔 서사가 진행된다는 점이다.<sup>8)</sup> 심지어 범죄자를 묘사할 때에도 선악의 구도 속에서 악인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의 동기를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sup>9)</sup> 탐정은 범인이나 희생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동정하며 그들을 위기에 처하게 하는 배후 세력을 추적한다.<sup>10)</sup> 이러한 탐정은 제한된 공간(주로 응접실)과 단서를 갖고 논

7) 대중서사장르연구회, 앞의 책, 35-38면 참고.

8) 이와 같이 감정적이고 행동적인 탐정의 성격은 우선 대중의 기호와 연관된다. 한국 대중서사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파토스가 강하다는 것이다. 근대 이후 지금까지도 멜로드라마가 압도적인 주류 장르의 자리를 내놓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에서도 멜로드라마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를 말해준다. 그런데 한국 멜로드라마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파토스’, 혹은 ‘감정 과잉’으로 표출되는 ‘감정적 동일시’이다. 이러한 파토스는 수용자의 등장인물에 대한 동일시의 욕망에서 비롯된다. 이는 한국의 대중서사장르 전반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추리서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그래서 한국 추리서사에서는 주인공에게는 주로 사랑을 설정하여 동일시를 유발하고, 안타고니스트로서의 범죄자를 그럴 때에도 범죄동기를 설명하려 노력한다.(대중서사장르연구회, 앞의 책, 47면 발췌 및 참고.)

9) 한국의 1970년대 추리서사에 있어 선악대립의 구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196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 추리서사에서 경찰이 주인공으로 부상하면서 반공주의에 입각한 선악구도를 근간으로 하는 스파이(간첩) 스텔러가 양산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한국 추리서사에 있어 반동적 인물은 공산주의자가 된다.(대중서사장르연구회, 앞의 책, 54면 참고.)

10) 본고의 분석 대상이 되는 『특별수사본부』도 추리서사에 해당한다.

리적으로 추론해 문제를 해결하는 ‘응집실형 탐정’이 아니라 그 자신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개방된 공간에서 활동하는 ‘행동 중심형 탐정’이다.<sup>11)</sup>

이 글은 1970년대 대중서사에 기입된 여성 스파이에 관한 연구로서 그 당시 대중에게 인기가 많았던 대표적인 작품 『기생간첩 김소산』(『특별수사본부』 5권, 吳在昊 著, 1972)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sup>12)</sup> 이 소설의 서사는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스파이의 움직임을 고발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데에서 주목을 요한다. 서술자는 이러한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개입이 잦으며, 이는 사건을 객관화하여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의 주관적 시선 아래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만든다.<sup>13)</sup> 따라서 이 소설은 주인공보다 독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에 서스펜스물에 더 가깝다. 물론 부분적으로 스틸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인공인 검사 오제도가 앞으로 어떤 추리와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를 주인공보다 독자에게 한 발 앞서 제시한다.<sup>14)</sup> 이러한 소설 기법은 주인공 오제도 검사와 대립하고 있는 배후의 세력이 저지른 악행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말을 저자의 의도대로 통제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저자는

11) 정규용, 『추리소설의 세계』, 살림, 54면 참고.

12) 『특별수사본부』는 1970년대 대중에게 인기가 있던 소설로서 영화로 제작되기도 한다. 이 시리즈는 해방공간을 배경으로 공안검사 오제도가 매회 간첩 하나씩을 잡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시 인기를 끌었던 것은 김수임(윤소라 분), 이난희(안인숙 분), 김소산(윤정희 분) 등 주로 미모의 여간첩 사건이다. 그녀들은 모두 이념 때문이 아니라 연인 때문에 공산주의에 가담하여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설정되고, 결국 오제도 검사(선일룡 분/최무룡 분)의 인격에 감화되어 잘못을 뉘우치고 총살당한다.(대중서사장르연구회, 앞의 책, 60면 참고.)

13) 대표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다. “여기서 독자 여러분이 기억해 뒤야 할 것은 이미 작고한 정계 거물들을 비롯해서, 지금도 사회명사로 자타가 공인하는 일부 당시 고위층 인물들은 이런 일(오제도가 남포당원들을 수색하는 일 - 필자)이 있는 후 직접 간첩으로 오제도에 충고 비슷한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이다.”(오제호, 앞의 책, 155면.)

14) 서스펜스(suspense)와 스틸(thrill)은 독자에게 긴장이나 공포를 자극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설적 장치이다. 본문에서 기술했듯 서스펜스가 주인공에게 정보를 제한시킬 때 발생한다면 스틸은 독자에게 정보를 제한시킬 때 발생한다. 『기생간첩 김소산』은 상대적으로 주인공(오제도)에게 정보를 제한시키는 쪽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서스펜스물에 가깝다.

이 소설이 그 자신의 의도대로 독해될 수 있게끔 표제, 사진자료, 서문, 저자 후기 등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도 서술자의 목소리를 빌려 사건을 조작적으로 해석하고 개입한다. 한편, 이 소설은 추리서사의 골격이 되는 인물유형의 3분할(탐정/범인/희생자)이 부분적으로 해체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것은 주인공에게 동정의 시선을 받는 주인공 김소산이 바로 ‘여성 스파이’의 역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정계의 주요 인사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지하조직 남로당에게 전한다. 하지만 그녀가 오로지 범인으로만 묘사되기보다는 그 자신도 남로당으로부터 회유와 협박 등을 당한 처지로 묘사된다. 이러한 인물유형의 등장은 1970년대 한국 추리서사의 주제와 특징을 밝히는 데에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따라서 본고는 추리소설 속 범인/희생자 유형에 해당하는 ‘여성 스파이’에 주목하여 이 인물이 소설의 주제를 어떻게 굴절시키려는 주목하고자 한다. 이들은 첩보활동을 통해 국가의 기밀을 빼내는 존재로서 주동인물인 탐정의 반대편에 서서 악한 짓을 저지르기에 중국에는 응징을 당해야만 하지만, 희생자의 신분으로 보장받기에 독자(및 주인공)로부터 동정의 시선을 받기도 한다. 반국가적 행위를 저지른 스파이에게 감정적 동일시를 유발하게 만드는 독특한 추리서사는 1970년대 남북 간의 고착화된 사상 전쟁과 일상에 스며든 이분화된 이념에 대해 재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기생간첩 김소산』은 유신정권 하에 생산된 국가주의에 부합한 반공 텍스트로서 주로 그 의미화가 이뤄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추리서사 속 여성 스파이 인물을 주목해 보고 그 인물이 발생시키는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소설의 주제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스파이 내러티브’는 『新時代』를 비롯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된 바 있지만 전쟁 말기에 이르러서는 그 맥이 끊어진 것으로 판단된다.<sup>15)</sup> 하지만 해방 이후 곧바로 스파이 내러티브는 이광수 등에 의해 새롭게 창작된

다.<sup>16)</sup> 최근 역사학계는 전후 한국의 반공 체제에서 생산된 스파이 담론이 과잉 냉전의 산물로 이해하며 반공주의 정책으로 통합되지 않는 다양한 욕망을 읽어내는 데에 집중한다.<sup>17)</sup> 이 연구들은 남한 체제의 구조적 성격과 그 지배의 언어를 비껴나가는 개인의 욕망을 포착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하지만 체제/반체제, 지배/저항, 국가/개인 등의 이분화된 도식을 선형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스파이 서사가 반공 논리를 강화하는 쪽이든 혹은 그 논리를 전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으로 보는 쪽이든 스파이 서사의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그 새로운 독해의 가능성을 질문하지 않는다. 1970년대에 들어 대중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특별수사본부』(1972)는 ‘실록소설(實錄小說)’이라는 장르로 발행된 시리즈로서 개별 에피소드들이 영화로 제작되기도 한다.<sup>18)</sup> 그중 『기생간첩 김소산』은 여성 스파이 서사의 정점으로 손꼽히기에 주목을 요한다. 본고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스파이이면서도 남로당 지하조직 일당의 꾀에 속아 넘어간 희생자 김소산의 인물에 특히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 작품은 아군과 적군,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구축하고 공고화하는 서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소산이 구축되는 양상을 보면 보다 근본적인 질문인 ‘사상과 이념이란 무엇이고, 그것을 체현하고 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로 서사의 주제가 이동한

15) 조윤정, 「비밀전, 스파이, 유연비어 - 『신시대』에 나타난 통합과 배제의 논리 -」, 한국어문학연구 제57집, 2011, 211-248면.

16) 공임순, 앞의 논문, 507-563면.

17) 김봉국,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간첩 담론의 양가성」, 역사연구22, 역사학연구소, 2012, 105-138면; 이봉범, 「폐쇄된 개방, 허용될 일탈: 1950년대 검열과 문화지형」, 권보드래 외 편, 『아프레길 사상계를 읽다: 1950년대 문화의 자유와 통제』, 동국대학교출판부, 2009, 13-57면; 박명립, 「종전과 “1945년 체제”: 냉전, 남북관계, 국내정치와의 관계와 동화」, 문정인·김세중 편,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 선인, 2004, 235-273면; 이하나, 「1970년대 간첩/첩보 서사와 과잉 냉전의 문화적 감수성」,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15, 372-411면.

18) 전지니, 「반공과 검열, 그리고 불온한 육체의 기묘한 동거 - 1970년대 영화 ‘특별수사본부’ 여간첩 시리즈에 대한 고찰-」, 여성문학연구 제33호, 2014.



다. 그녀는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과 이를 전복하려는 상징화된 질서를 거부하고, 사법권력과 제도가 비껴나간 대화를 유도하며, 비언어화된 육체 등에 주목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녀가 발생시키는 행동(사건)의 수행적 의미는 이 소설의 다채로운 주제의식을 형성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1970년대 간첩/첩보 서사는 냉전의 산물로서 독해되어 왔지만 본고는 그 감각을 넘어서는 논리가 텍스트 안에 내장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2. 『기생간첩 김소산』과 반공 이데올로기

1972년 6월 1일 “實錄小說”이라는 표제를 단 『특별수사본부』는 전7권으로 倉元社에서 우선 발행되었다. 대중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린 이 시리즈는 이후 총 21권까지 늘어났으며 23편의 에피소드를 탄생시켰다. 사건 8편과 인물 15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중 7편이 여간첩 사건을 다루고 있다.<sup>19)</sup> 이 시리즈에서 드러난 여성 스파이는 재색을 겸비하고 있고 이를 이용해 스파이 활동을 한다.<sup>20)</sup> 오재호가 쓴 『기생간첩 김소산』은 이러한 특질이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서 홀라춤을 추는 이색적인 분위기를 띄는 여성 스파이 김소산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 작품의 서사 배경은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1947년경부터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1951년까지이다. 이 3년간의 시기는 대한민국의 건국(정부수립)과 그 건국을 방해하는 공작이 함께 공존하는 시기로서 위 소설이 주로 다루고 있는 역사적 사건은 ‘제한’, ‘여수순천반란사건’, ‘국가보안법 입법’, ‘6·25 전쟁’, ‘9·28 수복’ ‘부역자재판’ 등이다. 1940년대 말은 아직 국가보안법이 시행

19) 여간첩을 다루는 시리즈는 다음과 같다. 『제5권 기생간첩 김소산』, 『제6권 여학생계릴라 김보인』, 『제7권 여간첩 김수임』, 『제9권 운명의 여인 배태옥』, 『제11권 여비서 이난희』, 『제13권 어느 여인의 고백』, 『제19권 여학생 변이숙 사건』.

20) 전지니, 앞의 논문, 382면.

되기 전이었기에 공산주의 활동이 합법화되던 시절이었다. 이 소설은 6·25 전쟁이 결국 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지하조직을 운영하고 있던 남로당의 첩보전을 지목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일상을 상시 감독하는 국가보안법 및 사상검증 장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독해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록소설’이라는 표제를 갖고 있다. 이는 이 소설이 객관적 현실을 가감없이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레토릭이다. 창원사에서 1972년에 발간한 전7권 특별수사본부의 초판 발행을 보면, 소설이 시작되기 전 다양한 사진 자료와 함께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붙인다. 먼저 그 사진 자료는 ①해방 후 서울 시내 전경 및 본 소설의 무대가 되는 국일관의 모습, ②9·28 수복 직후 서울의 참혹한 거리, ③6·25 전쟁 전 3·8선 부근, ④남침하는 북한군의 모습 및 전쟁으로 인한 폐허 등에 관한 것이다. 특히 “(북한군이-인용자)서울에 쳐들어오자 형무소를 나온 많은 공산분자들이 제 세상을 만난다는 듯이 날뛰었다. 김소산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수사진의 온정을 배신한 그녀는 붉은 대열에 끼어 포항까지 내려갔다는 것이다.” 등의 서술을 통해 저자는 이 작품의 의도를 분명히 한다. 소설이 시작되기 전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를 시사하고 그것에 대해 사실성을 강조하며 독자에게 어떤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관행은 장단이 분명한 양날의 검이다. 먼저 장점으로는 저자가 서사세계를 설계할 때 작은 단서만으로도 독자와 같은 지평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작품 세계에 대해 세밀한 묘사가 여타의 소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불필요하다. 설령 저자가 인물 및 그 인물의 주된 행위가 수행되는 공간인 세계를 묘사함에 있어 누락된 지점이 발생하더라도 독자의 상상력이 그 실수를 보충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독자는 해당 텍스트의 서사배경이 지시하고 있는 1940년대 말,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의 한국사회를 곁텍스트(para-texte)로서 쉽게 맥락화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즉, 서사세계 구체성

획득의 성패는 독자의 적극적인 의미 해석의 감각에 의존한다. 이것이 사실성을 앞세운 실록소설의 장점이라면 그 단점은 저자가 그리려는 세계에 대해 독자의 정보량이 더 많을 경우 저자의 권위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독자와 정보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아주 단순한 역사적 사실조차 재차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된다. 그뿐만 아니라 허구(fiction)를 통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소설이라는 언어예술의 본질적 성격 중 하나인 허구는 저자의 상상력과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장치이다. 이러한 허구가 갖는 미덕은 특히 추리소설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실록소설”에서는 제한적으로 작동한다.<sup>21)</sup> 텍스트가 실화에 바탕을 두고 현실의 정치적 사건들과 육박해 있을 때 저자가 갖는 자율성의 폭은 더욱 좁아진다.

1970년대는 글쓰기의 한 형태로 르포장르가 본격적으로 나오던 시기로서 김윤식은 이에 대해 김승옥·이청준으로 대표되는 1960년대 소설(글쓰기)과 구별되는 낯선 것으로 파악한다.<sup>22)</sup> 1960년대 “새로운 감수성”의 혁명을 이끈 소설이 작가의 창조적 정신과 역량에서 배태된 것이라면 르포는 저자의 상상력을 억제하고 객관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방해내는 것이 미학의 모범으로 간주하는 장르이다. 즉, 작가의 창조적 정신과 역량을 규정하고 견인하는 것이 객관 현실의 정확한 파악이라는, 문학의 인식 기능을 강조하는 문학관이 등장했음을 시사한다. 1970년대 추리소설

21) 한편, 『기생간첩 김소산』은 ‘역사추리소설’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오혜진에 따르면 역사추리소설이란 방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추리소설이라는 전형적인 장르에 ‘역사’가 내용을 이루는 소설이다.(오혜진, 『시대와의 감흥, 역사추리소설』, 역락, 26면 발췌.) 위 연구는 ‘역사소설과 비교적 근대적 면모가 강한 ‘추리소설’의 장르를 각각 고찰하는 한편, 이 두 장르가 어떻게 결합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밝히고 있다. 다만, 역사추리소설의 기원을 1990년대(이인화의 『영원한 제국』(1995, 세계사)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추리소설에 대한 명쾌한 장르 정의와 방대한 문학 자료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22) 김윤식, 정호웅, 『한국소설사』(개정증보판), 문학동네, 413면.

은 대중의 취향에 부응하는 것과 더불어 당시 르포형식의 확산과도 상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겠지만 추리 소설이 실록소설이라는 세부 장르를 표제화하고 있다는 점과 그 서사의 내용이 사실임을 강조한다는 점, 그리고 주인공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추론 가능하다. 1970년대 추리소설은 본격소설과 마찬가지로 진실에 대한 소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6·25 전쟁이 발발할 당시 남한 내부의 스파이 활약의 진상에 대한 담론에 가담하고 있다.

『기생간첩 김소산』(이하 『김소산』으로 약칭)의 서사는 크게 두 축으로 분할된다. 남로당의 핵심 간부의 지령을 받아 주인공 김소산과 함께 공작을 펼치는 임춘식 일당의 진영과 이를 저지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 를 꾸려 활동하는 오제도 검사 및 김임전 형사팀의 서사로 양분된다. 탐정의 진영과 범인/희생자의 진영이 양분되는 추리서사는 기본적으로 미스터리 계열의 추리소설(범죄의 이야기(과거)와 수사의 이야기(현재)가 교차 진행)이 아닌 ‘범죄 추리소설’의 계열로 본다. 스파이 소설을 아우르고 있는 범죄 추리소설은 탐정이나 범인에 동일시를 중요시하고, 격렬한 신체적 움직임을 동반한 모험, 사회나 범죄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범죄 추리소설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사건의 발달, ②살인사건이나 중대한 범죄 발생, ③주인공이나 탐정과 같은 역할을 맡은 인물이 사건에 연루되거나 수사 진행, ④주변인들과 혐의자들 탐색, ⑤사건 발생(제2의 범죄, 혹은 제3의 범죄), ⑥잘못된 해석, 다시 탐색과 추리, ⑦클라이맥스 (climax), 범인과 대치, 탐정 혹은 주요인물의 위협, ⑧진실의 공표, 해결 등이다.<sup>23)</sup> 위 소설은 이러한 문법을 부분적으로 따르고 있지만 ⑤, ⑥과 같은 ‘제2 혹은 제3의 사건 등’의 발생과 ‘잘못된 해석’ 등의 서사는 가지 적이지 않다.

소설의 윤곽은 다음과 같다. 미모가 뛰어난 기생 김소산은 국일관에서

23) 추리소설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오혜진(『시대와의 감흥, 역사추리소설』, 역락, 23-29면)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남로당원 임춘식의 눈에 띈다. 임춘식은 남로당의 지령을 받아 그녀에게 접근하여 정계의 인사들과 만남을 갖게 하고, 유용한 정보를 취득하는 작전을 수행한다. 즉, 그는 뛰어난 외모와 말솜씨로 김소산을 정부로 삼아 “푸락치”(87) 노릇에 가담시킨다. 김소산은 임춘식과 그의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로당 스파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서술자는 임춘식 또한 자율성이 있는 존재로 묘사하기보다 상위 조직이 시키는 대로 이행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 한편, 이 소설의 주인공인 오제도는 특별수사본부를 이끄는 검사로서 그의 수족이 되는 형사 김임전과 함께 남로당의 지령을 받아 수행하는 스파이를 색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특별수사본부는 제헌국회가 이달 중에 제헌헌법을 공포하게 될 것이며, 공포와 동시에 초대 대통령을 선출·취임시켜 안전하게 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치안을 유지시키고자 한다.

이 소설은 ①행동중심형 탐정(오제도 검사)이 등장해 베일에 싸인 사건의 내막에 점점 접근해 나가는 서사를 가진 것에서 알 수 있듯 범죄 추리 서사의 문법을 따르고 있고, ②희생자/범인(김소산)의 인물 유형이 구성적 사건에 깊이 연루돼 있기도 하며, ③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를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지(사법 체제)에 대한 고민이 서사 배면에 깔려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건대 다양한 층위에서 독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저자가 의도한 주제는 희생자/범인의 고통을 강조하고, 그녀를 회유와 협박으로 구슬린 남로당의 잔학무도함과 그 악행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드러난다. 작품은 오제도 검사에게 검거당한 김소산이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으로 끝맺는데, 그녀는 이순간 오제도 검사에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남로당의 스파이로서 활약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친다. 그녀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끔 설정한 이유는 지금까지 그녀를 정보 수집의 수단으로서만 이용한, 인간성을 상실한 남로당의 잔혹한 차가움을 드러내고, 동시에 휴머니즘을 간직한 채 작동하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오제도)의

따뜻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저자가 후기에서 “공산당의 잔인한 수법은 새삼 우리를 전율케 하며, 거기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397면)고 서술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이 소설은 발간 당시 공산주의의 잔혹성과 비야만성을 드러내기 위해 창작한 의도가 저변에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 추리소설은 박정희 정권기 군사화 시대의 자장 속에 놓여 있다.<sup>24)</sup> 이 서사는 일상에서 국민을 무장시키고 전쟁이라는 폭력적 사건 속에 당사자들을 머물러 있게 만든다.<sup>25)</sup> 이러한 ‘머무름’에 대해 오카 마리는 사람이 사건(전쟁)을 영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사람을 영유한다고 주장한다.<sup>26)</sup> 그러므로 전쟁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그 속에 귀속시키고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1970년대 한국의 공포 정치는 국가와 개인을 공통의 명분 속에 놓이게 하며 끊임없이 전쟁의 기억 속에 머무르기를 조장한다.<sup>27)</sup> 『김소산』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과 6·25 전쟁 중에 발생한 이질적인 목소리들을 강박적으로 삭제하고 억제시키는 정치적 사건들을 다룬다. 오제도(오제)는 반공 검사로서 남로당 지하조직과 정계의 인사들을 주시하고 뒤쫓는다. 그는 질서정연한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 애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물로 묘사될 뿐만 아니라 청렴 결백하고 따뜻한 인간미까지 겸비한 탐정으로 그려진다. 그렇기에 반란 사건들과 모략 그리고 결국 발발하게 된 6·25 전쟁 등은 탐정의 초점을 통해 비이성적이고 우발적이며 비인간적으로 의미화된다. 그는 일상 속에서 비일상적인 것을 찾고, 늘 초조해하며, 작은 단서조차 간과하지 않는 강박적인 존재로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반국가적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이끈다. 특히 남로당의 “완벽에 가까운”(120) 지

24) 권인숙, 「한 여성 활동가 이야기」,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156면.

25) 오카 마리, 김병구 옮김, 『기억·서사』, 소명출판, 2000.

26) 오카 마리, 위의 책, 161면.

27) 권인숙, 위의 책, 163-164면.

령 전달 체계에 대해 오제도는 “세상엔 완전한 비밀이란 없는 법이고 완전한 연극이란 것도 없는 것이다.”(121)라고 되뇌이며 수사를 지시한다. 그러므로 탐정 초점화의 효과는 독자로 하여금 일상 속에서 파국을 예견하게 만들고 전쟁의 기억을 강제 귀속한 상태로 묶어두도록 하며 그러한 생각이 기실 정당한 것임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독해는 19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강화된 경찰 역할과 함께 탄생한 치안국가를 통해 보장된다.<sup>28)</sup> 더군다나 이 시기에는 냉전과 분단이 고착되고 유신헌법을 통해 박정희 권력블록이 강화되는 가운데 민족주의와 반공주의라는 체제 통합적 이데올로기가 부상한다. 따라서 독자는 당대의 추리서사 및 경찰 인물을 통해 반공국가에 통합된 안전한 귀속감과 함께 민족주의 정신을 고양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970년대 대중 미디어에 등장한 추리서사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정치소설로 읽힐 가능성이 높다.

3장에서는 위와는 다른 각도로 본 소설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 등장 인물 중 여성 스파이인 김소산에게 주목하여 소설의 주제가 어떻게 굴절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다. 특히 그녀가 갖는 육체와 그 행위능력을 중심으로 어떤 사건 전개와 갈등의 양상이 출현하게 되는지를 주목해 본다.

### 3. 여성 스파이 육체의 전시와 서사전개

이번 장은 스파이의 젠더가 서사의 내용(및 분량)을 결정짓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계획됐다기보다 서사세계 내에서 여성 스파이가 어떤 행위능력을 갖고 있으며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 작성했다. 여러 남성 인물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미모

28) 앞의 책, 37면.

의 여성 스파이는 소설 속 그들로 하여금 감정과 몸을 단속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 캐릭터이다. 여성 스파이와 대면하는 남성들은 이 보이지 않는 유희와 씨름하며 자신이 어떤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실감한다. 소설 『김소산』에서 주인공 김소산은 첫 장면에서부터 이러한 매력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예고된다. 당시 일급 요리집의 국일관 기생으로서 “홀라춤의 여인”(17)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김소산은 못 남성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sup>29)</sup> 소설의 발단에서 못 남성들의 관심은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으로 제시된다. 국일관의 객이었던 장참봉이 그만 본인의 의지를 주체하지 못하고 춤을 추고 있는 김소산에게 덤벼들어 껴안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가벼운 에피소드는 앞으로 소설의 주인공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고, 이것이 소설 속에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를 예견하는 동시에 서술자가 본 인물을 통해 어떤 중심 주제로 독자로 하여금 안내할 것인지 시사한다. 독자는 이 짧은 해프닝을 통해 김소산을 둘러싸고 있는 아우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의 힘이 어디까지이고, 어떤 또 다른 사건들을 연쇄적으로 발생시켜 나갈 것인지를 상상하게 된다.

29) 이 소설에서 김소산의 직업이 기생으로 나오는데 서사 내에서 해당 직업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조선 초까지 기생은 원래 각종 유희 현장에서 춤, 노래, 풍류 등으로 흥을 돋우는 일을 담당하던 특수 직업여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기녀(妓女) 혹은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의미의 해어화(解語花)라 불리며, 궁중 내연이나 의식에서 가무를 담당하여 여성 음악인이라는 뜻의 여악(女樂)으로도 불렸다. 이들은 예외없이 관에 소속된 관비의 신분이었으며, 일종의 사치노예였다. 그러나 관기 제도는 구한 말 갑오개혁과 함께 막을 내리게 되고, 시중에 나온 기생들은 기생조합을 설립해 생계를 이어나가게 된다. 기생조합은 1914년 일본풍이 본격적으로 유행되면서 권번(券番)으로 이름을 바꾼다. 권번은 기생을 발굴하여 교육하고 일정 기간의 학습을 마친 기생을 요리집과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기생 조직을 관리해 나갔다. 허가를 받은 기생은 일급 요리집이었던 명월관, 국일관으로 불려 다녔고, 요리집에서는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기생의 사진을 담은 홍보자료를 돌리기도 하였다. 관에 매였던 기생이 이윤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박애경, 「기생-가부장제의 경계에 선 여성들, 『여성이론』 4, 여성문화이론 연구소, 2001, 221-230면 발췌 및 참고.) 이 소설의 서사배경은 1940년대 말-1950년대 초까지이므로 당시 기생은 기생조합 및 권번을 통해 육성된 전문 가무인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고, 장차 대중 예술인이 될 잠재력이 있는 직업여성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한국에서 최초로 하와이의 홀라덴스를 찼다는 당대 으뜸의 기생.

반나체로 그 풍만한 육체를 뱀처럼 뒤흔들며 돌아가는 이색적인 홀라덴스를 구경하자면 변두리 주택 썸이야 서너채는 죽히 날려야 비로소 가능할 정도였다. 국일관 기생 김소산, 홀라덴스의 김소산,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름없을 고관대작과 기생과의 함수관계로 미뤄볼 때 어찌면 기생 김소산은 그때부터 파란의 인생을 예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sup>30)</sup>

위 인용문은 앞서 제시한 사건 직전에 서술된 김소산에 대한 묘사이다. 먼저 서술자는 “반나체로 그 풍만한 육체를 뱀처럼 뒤흔들며 돌아가는 이색적인 홀라덴스”(19)를 추는 김소산에 대해 언급하며 그녀의 몸을 전시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어 “고관대작과 기생과의 함수관계로 미뤄볼 때 어찌면 기생 김소산은 그때부터 파란의 인생을 예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19)고 서술하고 있다. 이 대목은 텍스트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갈지를 드러내는 복선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서술자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각인시킨다. 서술자가 서술행위의 층위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행위는 텍스트 곳곳에서 발견되며 이는 해석에 대한 독점권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앞서 기술했듯 이 소설은 1970년대에 생산된 반공 작품으로서 선명한 주제의식과 명확한 저자의 의도를 일관성있게 유지하기 위해 소설의 사진자료 및 그에 대한 설명과 서문에서부터 저자가 서술자로 등장하고 있으며 본문에서 또한 서술자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드러내며 그 통제력을 강화해나간다. 다시 위 인용문으로 돌아오면, 이 대목을 통해 김소산의 육체가 갖는 행위력과 그 행위력을 통해 어떤 사건을 전개시켜나갈지를 작품의 중심에 놓는다.

그녀의 육체에 대한 관심은 이후에도 지속된다. 여자를 잘 다루기로 정평이 나 있는 보안국 형사 ‘이우열’은 주인공 오제도 검사의 명령을 받아

30) 오재호, 앞의 책, 19면.

김소산에게 접근한다. 오제도도 그녀가 현재 남로당의 지령을 받아 정계의 거물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의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여성을 요리하는 데는 백전노장인 이 우열 형사도 기분이 이상해 지는 것”(128)을 느낀다는 서술이다. 이우열은 “김소산의 몸이 차의 진동을 이용하여 은근히 기대”오고 “그 풍만한 가슴이 이 형사의 팔꿈치에 와 닿”(128)으면서 그녀에게 이끌리는 마음을 억제하려는 내적 갈등을 겪는다. 오제도도 이우열은 통해 김소산에게 분명한 경고를 전달하고자 하지만 결국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다. 김소산은 “육체를 무기로 삼을 수 있”(131)고 이우열은 그것에 저항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소산의 ‘육체-무기’는 연애감정을 동반하며 로맨스 분위기를 환기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 순간은 긴장되며 비밀, 첩보, 사랑 등의 요소가 연쇄적으로 중첩되며 진행된다. 이 장면의 중심을 차지하는 건 단연 김소산의 섹슈얼리티이다. 이는 저항과 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서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의미를 생산함과 동시에 서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빌미를 제공한다. 그녀의 육체는 기실 오제도 무리들에게만 그 행위력이 끼치지 않는다. 남로당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임춘식에게도 동일한 수준으로 영향을 준다. 종합하자면 그녀의 육체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준비하는 오제도 검사 팀과 그것을 훼방하고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남로당 진영 사이에 위치하고, 어느 한 쪽으로 사상적 전향을 결심하지 않기 때문에 두 거대한 상징계에 포섭되지 않은 채 전시된다. 이 소설은 김소산을 중심으로 유혹과 저항, 설득과 협박, 관능과 금욕 등의 사건 패턴을 반복적으로 펼쳐보이며 서사의 골격을 형성해 나간다. 그녀의 육체는 대한민국 건국 이념과 공산당의 강령을 부차적인 문제로 만들고, 휴머니즘과 온정이 배풀어지는 신비스러운 감정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신비화의 의미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장에서는 그녀의 육체가 서사의 관심 대상으로 위치하는 것과 그 주된 내용을 이루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성적 사건을 이끌어내는 주인공 김소산은 이렇듯 서사의 진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내면에 대해서는 좀처럼 초점화되지 않는다. 서술자는 그녀의 판단과 행위의 근거가 되는 내력이나 자기서사(self-narrative)의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다. 김소산이 남로당에게 지목을 받은 것은 “대단한 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박색도 아니고, 크지도 작지도 않으면서도 알 수 없는 매력을 풍기던 여자.”(86~87)이기 때문이다. 남로당은 “(김소산이 인용자) 잠자리 째은 언제라도 함께할 수 있”(87)고 “김소산을 포섭하기만 한다면 긴장이 풀린 주석에서 남로당이 그렇게 혈안이 되어 노리는 정치정보 째은 쉽게 얻을 수 있었”(87)기에 접근한다.

「김소산이 나이가 몇이래?」

「.....」

「몰라? 그럼 어디 태생이야?」

「모르겠습니다.」

장호식도 이인수도 김소산의 신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다.

「홀라덴스는 어디서 배웠는지 아나?」

「글쎄요」

역시 막연해 하는 장호식의 대답이다.<sup>31)</sup>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서술자는 김소산의 내력이나 인생관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오히려 물질화된 육체를 전시하는 데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이는 서사 곳곳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며 그녀의 행동과 판단의 당위성의 서사는 무한히 지연되고 비언어화된 존재로서 서사 공간에 배치된다.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김소산의 내면을 초점화하는 곳은 「제6장 여인의 역사」 장(272)이다. 이 장의 도입부에서 김소산은 본인의 기구했

31) 오재호, 40~41면.

던 유년과 이후 국일관에 오기까지의 개인사를 대략적으로 말할 기회를 얻는다. 다만, 서술자는 김소산의 불우했던 환경(“해방 후에 삼촌을 따라 월남했다가 호열자로 삼촌을 잃고는 곧 술집으로 뛰어듦”)(273면)과 그로 인해 갖게 된 인생관 등의 내면에 대한 것보다는 그녀가 어떤 전문성을 습득하여 지금의 국일관 기생 자격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중점화한다. 결국 그녀는 “풍만한 육체”(19, 128, 171). “빨가벗고 추는 춤”(75), “폭넓은 벨트가 가슴 언저리까지 올라온 원피스에 선교사 풍의 굵높은 하이힐”(175), “전라의 몸”(190), “요염한 자태”(233)라는 묘사 등을 통해 겉모습으로만 존재하며 그것을 통해서만 말한다. 여성의 아름다운 육체라는 것은 서사세계 내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으로 다뤄지며, 이는 인접 인물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소로 작동한다. 전술했듯, 그녀의 이러한 육체는 서사의 핵심적인 사건을 발생시키고, 서사가 봉합되지 않도록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다음 장에서는 그녀가 갖는 육체의 전 시와 그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4. 비언어화된 육체와 질서 바깥의 상상력

이번 장에서는 소설 속에서 김소산과 그의 육체가 소설의 주제를 어떻게 변주하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 소설은 앞서 말했듯 반공 텍스트로서 저자의 의도와 그 주제의식이 명확하다. 아래 저자 후기는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사건의 깊이는 김소산이란 기생의 몇 가지 흥미진진한 행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 인기 절정의 기생에게까지 뺏겼던 공산당 마수의 그 잔혹성과 악랄함에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공산당이 김소산이란 기생의 특성을 통해 당시 상류 인사들의 동

태와 갖가지 귀중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었던 사회적인 배경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 하겠다.<sup>32)</sup>

위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소설은 인기 절정의 기생에게 뺨친 “공산당 마수의 그 잔혹성과 악랄함”을 재현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공산당 김소산이란 기생의 특성을 통해 당시 상류 인사들의 동태와 갖가지 귀중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었던 사회적인 배경”을 고발하는 것 역시 소설의 주된 목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소설은 1970년대 유신담론 안에 배치된 상태에서 언어작용이 이뤄졌고, 치안 국가의 한 목표인 사회 단속의 기능까지 겸했으리라 짐작 가능하다. 이러한 주제의식은 김소산과 그녀를 중심으로 곁을 둘러싸고 있는 오제도과 임춘식 등을 통해 보강된다. 이들은 각각 본인에게 부여받은 책임과 역할을 이행하는 충실한 인물들이다. 오제도는 예리한 추리와 행동력을 이용해 정보 유출자로 김소산을 의심하고 검거에 성공하고 그 배후 세력까지 추적한다. 임춘식은 김소산의 가치를 알아보고 접근하여 남로당의 스파이로 영입한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일종의 스파이이자 남로당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겪는다. 그러므로 서술자는 아름다운 한 여성에게 마수를 뺨친 남로당의 잔악한 수법을 비판하는 한편,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의 질서를 드러낸다. 이것이 서술자가 그리려는 구도이다. 그러나 저자의 의도와 소설의 목표가 곧바로 독자의 감상으로 이어지는 않는다. 여성 스파이의 역을 수행한 김소산과 그를 둘러싼 인물과 환경은 고정된 의미망 안에서 해석되지 않는다. 분명 그녀는 아름다운 한 여성을 유린한 남로당 일당의 잔악한 만행을 고발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기도 하지만 그 언어작용 바깥의 틈새 또한 갖는다. 이번 장에서는 김소산을 통해 발생하는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2) 오재호, 저자 후기, 397면.

이 소설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남로당의 임춘식에 눈에 띈 김소산은 스파이로 이용당하게 된다. 본의 아니게 스파이가 된 김소산은 정계의 인사로부터 얻어낸 정보를 임춘식에게 넘긴다. 이를 눈치 챈 특별수사본부의 오제도 검사는 김소산을 불러 더이상 국일관에 나오지 않도록 설득한다. 이 설득의 장면은 지극히 ‘인간적인 대화’의 형태를 띤다. 그러던 중 여순반란사건이 터지게 되고, 오제도도 더이상 김소산에 대해 관용의 여유가 없어지자 압박수사를 시작한다. 한편, 남로당은 김소산의 이용가치가 떨어지게 되자 임춘식을 시켜 그녀를 암살하도록 명령한다. 오제도는 궁지에 몰린 김소산에 대해 연민을 느끼면서 그녀의 개인사 및 내면에 점점 접근하게 되고 남로당으로부터 그녀를 구출해내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김소산은 오제도를 죽이라는 남로당의 지령을 받게 되고 갈등하다가 결국 그 지령을 이행하지 않고 오제도 편에 서서 이중 스파이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다가 6·25 전쟁 발발 직전 그녀는 오제도 검사를 배신하고 자취를 감춘 채 남로당 일당 밑으로 들어간다. 9·28 수복 이후 후방으로 후퇴했던 특별수사본부는 국일관을 근거지로 임시특별수사본부를 꾸린다. 그리고 이내 김소산을 검거한다. 결국 그녀는 전쟁이 한창 중인 1950년 12월 24일 부역자 재판을 통해 형을 확정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위 스토리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김소산을 향한 오제도 검사의 끈질긴 회유와 설득의 과정이다. 이는 “인간적인 대화”(142~153, 188, 290~292)라는 사적 만남의 틀 안에서 진행된다. 이 둘의 ‘인간적인’ 만남은 그가 속해 있는 사법체계의 경험 바깥에서 이뤄지기에 서사의 흥미로운 부분이고 주목을 요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소설 주제의 다층적인 면모 또한 드러내게 하는 핵심적인 것으로서 세심한 독해를 요구한다. 그리고 오제도 뿐만 아니라 임춘식 또한 김소산과 부딪히며 그가 지금까지 행동해오던 패턴을 벗어난다. 이러한 서사적 돌출은 작품의 주제가 반공주의로 통합되는 것을 부분적으로 저지한다.

스스로를 “악질 반동검사”(26)라고 성격을 규정하는 오제도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는 평소 애국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절제와 정의감을 갖고 대하고, 반동인물을 색출하는 데에 전력을 다한다. 그는 사법권력 작동의 끝단에 위치하며 반국가적 음모 꾀하는 남로당 계열의 인사와 반목한다. 한편, 임춘식은 남로당의 하수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그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한 사태를 일으키기 위해 정계의 인사들에게서 정보를 수집하는 연락책이다. 그는 지하조직에 속해 있고 주로 은밀하게 활동하며 익명으로 가려진 상관의 명령을 이행한다. 물론 1948년을 전후로 한국에서 공산당 활동의 합법성 여부가 달라졌지만, 임춘식은 한결같이 걸음으로 드러나지 않는 음지 생활을 이어나간다.<sup>33)</sup> 종합해보면, 오제도와 임춘식은 다음과 같이 이분화해 설명할 수 있다. 남한 대 북한, 합법 대 비합법, 양지 대 음지, 사법권력의 작동 대 혁명을 통한 법의 중지. 이러한 대립적 구도는 소설 속에서 자명해 보이고, 또 두 인물을 설명하기에 유용한 틀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김소산의 개입으로 다른 양상으로 변모한다. 오제도와 임춘식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실은 거대한 체계의 논리를 제각각으로 답습하는, 그 내면의 구조가 같은 거울상이다. 즉, 이들은 각자 자신이 속해 있는 정교한 진영의 논리를 체현하는 인물이다. 다시 말해, 언어화되고, 문명화된 하나의 거대한 상징계에 포섭된 존재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제도와 임춘식은 표면적으로는 대척점에 위치한 듯 보이지만 기실 동일한 내면의 구조 속에 놓여 있다. 반면, 김소산은 상징계 바깥의 영역을 열어젖히는 인물로서 “사상이나 이념”(341)에 의해 행동하기보다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육체의 끌림에 의해 움직인다. 또한 그녀는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의 행동 원리를 따르도록 만드는 행위능력이 있다. 이는 앞서 3장에서 서술했듯

33) 이는 다음과 같은 서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쥐새끼들 처럼 지하 활동만 해오던 남로당이 국가보안법이 발의되자 솟제 땅 속으로 꺼져버린 작금의 동태이다.”(앞의 책, 234면)

서사 전반에 걸쳐 드러난다. 그렇기에 주변의 남성들(오제도와 임춘식 등)은 이성과 합리적 언어를 통해 다가가기보다는 “인간적인 대화”를 시도한다. 오제도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자 소설 속 주인공이다.

철저한 사상검증을 통해 반동분자를 색출하기로 유명한 오제도는 김소산을 살리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력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인 인물이다. 그는 그녀가 남로당의 스파이가 된 것을 알아차렸을 때 심문을 하는 대신 그녀를 불러 “간청”(153)하는 쪽을 택한다.

“오제도 검사의 이야기는 길게 계속되었다. 그러나 으름장이라기 보다는 설득으로 변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호소요 간청이었다.”<sup>34)</sup>

여자이기에 그의 죄상을 뻔히 알다시피 하면서도 설득했다. 인간적으로 설득했다.<sup>35)</sup>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그는 자신의 본분에 반하여 그녀의 죄를 알면서도 호소와 간청으로 설득한다. 이러한 장면은 저자의 서문과 후기에 드러난 작품의 의도 즉, 반공 이데올로기 서사의 창작과도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후 김소산을 설득하는 데에 성공한 오제도는 안심하지만 6·25 전쟁이 발발되기 직전 남로당 편으로 전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한다. 그는 9·28 서울수복을 기점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와 국일관을 임시특별수사본부의 근거지로 두었을 때 김소산을 검거하여 부역자 재판에 넘긴다. 하지만 그 재판 과정에서 오제도는 김소산의 사건을 담당할 사법기관 관련자에게 선처를 호소한다.

인간 김소산을 다시 본다. 죄는 나도 짓고 사는 거야. 죄가 밋지 인간

---

34) 오제호, 앞의 책, 153면.

35) 오제호, 164면.



이 미운건 아니야. 인간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참다운 인간적인 결단은 아니야! 남자 어때?<sup>36)</sup>

오제도는 김소산을 대할 때 법과 제도의 언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김소산과 접촉하면 할수록 그녀를 죄와 인간으로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녀를 그녀답게 만드는 것이 죄와 분리된 ‘참다운 인간’임을 인지하게 된다. 이 소설은 서사가 진행될수록 오제도를 초점화해 ‘죄와 인간이란 무엇이고, 사상과 선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독자가 응답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오검사는 “그 까짓 사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신뢰다. 선의라는 본성이다. 그러서는 그러한 신의와 선의를 저버리는 인간이 제일 미웠다.”(341)라고 고백하며 투철한 사명 의식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선의’에 주목한다. 한편, 임춘식 또한 김소산을 처치하라는 남로당의 지령을 받지만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 하는 인물이다.

그는 몸서리를 쳤다. 그도 공산당원이다. 공산주의의 조직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 짚은 그도 안다. 그 세계에선 인정이나 자비 따위는 값싼 부르조아 근성이라는 비난이 고작이다.

공산당의 조직은 냉혹과 무자비에 의해서만 움직여진다. 그러나, 저러나 이제 와서 김소산을 죽여 없애라는 지령이 내릴 줄이야 어찌 상상이나 했겠는가. 아무리 공산당이지만 짐승이 아닌 그러서는 전률(전율인 용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지금 공포와 전률에 떨고 있었다. 이 순간 만은 그도 공산주의를 중요하고 있었다. 그 중요는 곧 저주로 변했다. 육실했... 빌어먹을... 이런 소리가 부지중에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다.<sup>37)</sup>

36) 오제호, 292면.

그는 평소 당의 지령을 두려워하고 목숨처럼 생각하며 그걸 철저히 이행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김소산을 처치하라는 명령 앞에서 당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낸다. 결국 그는 그 지령을 이행하지 않기로 마음 먹고, 김소산에게 해당 사실을 실토하며 비호하려고 애쓴다. 물론 공산당에 대한 임춘식의 비판과 반감은 반공 이데올로기 주제의식의 강화라는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기술했듯, 김소산과 만나는 인물들이 각기 자신이 속해 있는 거대한 체제 내에서 운신의 폭을 제한해온 패턴을 기억해볼 때 임춘식의 이러한 이례적인 행동은 오제도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임춘식의 공산주의 비판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그는 전쟁 중 부산 탈환을 위해 포항에서 작전을 펼치다가 결국 사망한다. 오제도의 “인도적인 배려와 재생의 기회”(397면, 후기) 및 임춘식의 명령불복종 행위는 김소산과의 만남에서 기인하며 그들의 규율 일상에 구멍을 내는 역할을 한다. 그녀는 정과 사랑 그리고 현재의 시간만을 진실하게 믿는 존재로서 체제의 논리를 거부하며 주변 인물들과 관계 맺기를 실천한다.

김소산은 6·25 전쟁의 발발과 함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 긴급한 사태는 내부의 체제를 더욱 통합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한다. 체제에 통합되지 않은 대상의 제거 및 강박적 사회로의 회귀는 전쟁 발발을 기점으로 그 두각을 드러낸다. 1950년 12월 24일 이승만 대통령령의 서울 시민 피난령과 함께 국군의 흥남 철수라는 비보가 전해진 날, 그녀는 사형집행을 받고 유명을 달리한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김소산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 오제도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녀의 고백과 서술자의 직접적인 목소리로 구성된다. 그녀가 “(오제도 검사님께-인용자)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390)라는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서술자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그녀가 최후로 쓰러진 직후 싸늘

---

37) 오제호, 230~231면.

한 시체에서 향기어린 체취가 한동안 가시지 않았다는 소문이 전설처럼 퍼진 건 그 후의 일이었다.”(394) 작가의 의도대로 작품이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말에는 주인공 김소산의 참회와 뉘우침을 삽입하여 다소 무리한 봉합을 시도한다. 그녀는 사상이나 정치적 이념 없이 남로당에게 이용당했기 때문에 정상참작될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해당 내용을 간과한 채 급히 마무리한다. 다만, 그녀가 죽은 이후에도 “체취가 한동안 가시지 않았다는”(394면) 서술에서 알 수 있듯, 여전히 그녀의 육체(“시체”)가 전경화될 뿐만 아니라 언어로 붙잡히지 않는 물질화된 영역(“체취”)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바로 이곳에서 그녀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가능해지며 작품의 대주제가 드러난다. 그것은 작품 속 한국사회가 건국작업과 전쟁을 통과하며 이념적 인간을 생산하고자 하지만 그 이분화된 세계에 속하지 않는, 상징체계 바깥의 인물이 존재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 5. 결론

본고는 1970년대 특별수사본부 시리즈 중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 『김소산』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그 주제의식을 밝히는 데에 목표로 두었다. 이 소설은 여성 스파이가 한국 추리서사에 어떤 모습으로 각인돼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특히 1970년대 반공소설이라는 두꺼운 외피를 갖고 있는 본 소설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공산당의 잔혹함을 대비시키는 스토리를 펼쳐냄으로써 일견 그 주제 의식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여성 스파이 김소산은 체제 순응적 인물로 쉽게 코드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제도 검사와 임춘식 남로당원의 마음을 흔드는 행위력을 갖는다. 이 여성 스파이의 매력은 그 자신의 육체로부터 기인하고 이 소설이 금기와 위반의 문학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텍스트 독해의 역동성을

열어 짓힌다. 그녀는 체제의 사법권력(오제도)과 당의 이념(임춘식)으로 무장된 주변 남성 인물보다 위협적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특히 김소산의 잦은 외양 묘사와 그에 수반하는 성적 매력은 서사세계 내에서 다른 인물의 마음을 뒤흔들어놓을 수 있는 강한 무기로서 서사의 주된 갈등을 견인하는 트리거이다. 이러한 인물의 행위능력을 강하게 부각하고 있다는 점은 작가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독특한 서사전략이고, 1970년대 한국 추리서사의 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작품 후반부 김소산은 오제도와 임춘식 사이에서 어느 편에 속할 것인지 내면의 갈등을 겪는다. 이때 그녀는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면서 한껏 임춘식을 조롱”(324)하는 장면이 짧게 등장한다. 이 웃음은 그녀의 내면이 체제 강박적 남성 인물들 사이에서 붕괴되고 파편화된 모습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녀를 통해 발화된 ‘실성한 사람의 웃음’은 1970년대 유신체제의 문화에서 우리가 어떤 언어작용이 가능했는지 생각하게 만든다. 비록 순간적이긴 했지만 이 해방의 웃음은 그녀의 육체가 생산하고 있는 의미만큼이나 중요하다.

| 참고문헌 |

1. 소설

오제호, 『기생간첩 김소산』, 창원사, 1972.  
은모든의 소설 「첩보원 시절」, 『문학과사회』, 2022년 봄, 68~105면.

2. 단행본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김윤식,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대중서사장르연구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이론과 실천, 2011.  
오혜진, 『시대와의 감흥, 역사추리소설』, 역락, 2021.  
정규용, 『추리소설의 세계』, 살림, 2021.  
오카 마리, 김병구 옮김, 『기억·서사』, 소명출판, 2000.  
E. M. 포스터 지음, 이성호 옮김,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0.  
제라르 즈네뜨, 권영택 옮김,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3. 논문

공임순, 「냉전의 육화, 스파이의 비/가시적 신체 형상과 ‘최초’의 소재/미제 간첩단 사건」,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 연구 55, 2015, 507~563면.  
박애경, 「기생-가부장제의 경계에 선 여성들」, 『여성이론』 4, 여성문화이론 연구소, 2001.  
박명림, 「종전과 “1945년 체제”: 냉전, 남북관계, 국내정치의 관계와 동학」, 문정인·김세중 편,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 선인, 2004.  
오혜진, 「1950~90년대까지 추리소설의 전개 양상」, 어문논집 제44집, 2010.  
이봉범, 「폐쇄된 개방, 허용될 일탈: 1950년대 검열과 문화지형」, 권보드래 외 편, 『아프레겔 사상계를 읽다: 1950년대 문화의 자유와 통제』, 동국대학교출판부, 2009.  
이하나, 「1970년대 간첩/첩보 서사와 과잉 냉전의 문화적 감수성」,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15.  
전지니, 「반공과 검열, 그리고 불온한 육체의 기묘한 동거 - 1970년대 영화 ‘특별수사본부’ 여간첩 시리즈에 대한 고찰」, 여성문학연구 제33호, 2014.  
조윤정, 「비밀전, 스파이, 유언비어 - 『신시대』에 나타난 통합과 배제의 논리 -」, 한국어문학연구 제57집, 2011.

<Abstract>

## Representative of female spies in Korean mystery narratives in the 1970s

—Focusing on “Kisaeng spy Kim So-san”

Kim, Jaegeon

Mystery-narratives generally feature character types such as detectives, criminals, and victims. It refers to a story that uses the occurrence of a mysterious crime and the process of solving it as a central plot. This paper presupposes that the mystery story of the 1970s, when female spies appeared, has a strategy to partially break down the diagram of the divided character type presented above. Among the series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Headquarters』(1972), 『A gisaeng spy, Kim So-san』 was the main text of the analysis to reveal the subjective consciousness. In this novel, the character type of the criminal/victim appears in an integrated form, and the narrative proceeds to induce emotional identification with this character. When describing a criminal, it does not portray him as a villain in the composition of good and evil, but convincingly presents force majeure and the motive of the crime. The detective understands and sympathizes with the criminal/victim's situation and tracks down the forces behind it that put them in crisis.

The criminal/victim is a 'female spy' in this novel. This character is not integrated into the symbolic order of the founding ideology of the new Republic of Korea and the communist regime trying to overthrow it, driving events and conflicts that do not conform to the grammar of anti-communist novels. The source of this power comes from the 'body' of

female spies, so this paper focused particularly on this. The performative meaning of the action (event) she generates is a factor that forms the colorful subject consciousness of this novel, so it requires attention. So far, Spy-narratives of the 1970s have been read as a product of the Cold War. This paper attempts to argue that logic beyond that sense is embedded in this novel.

Key words: Mystery narratives, female spies, body, anti-communist novels, The founding of Korea, The Korean War

투 고 일: 2024년 5월 29일

심 사 일: 2024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14일

수정마감일: 2024년 6월 25일